

근로정신대 양금덕 할머니, 배우 송혜교에 감사 편지 쓴 까닭은

“미쓰비시 광고 거절 훌륭한 결심...가슴속 대못 빠진 듯 기뻐”

“송혜교 선생님이 전범기업 미쓰비시의 제의를 거부하는 훌륭한 결심을 했다는 말에 눈물이 나면서 이 할머니 가슴에 박힌 큰 대못이 다 빠져나간 듯이 기뻐했습니다.”

필 편지를 이달 초 송씨의 소속사 UAA에 보냈다. 양 할머니는 지난 4월 중순 세월호 2주기 추모제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활동가들에게 송씨가 일본 전범기업 미쓰비시자동차의 중국 광고 출연 제안을 거절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결심을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또, 감사하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우리는 돈이 문제가 아니고 (일본 아베 총리와) 미쓰비시에 사죄받는 것이 첫 번째 바람”이라며 “기필코 사죄를 받아야 저 세상 가더라도 눈을 감고 가겠다. 이 한목숨 다할 때까지 도와주시어 여러 분과 힘을 합쳐 꼭 싸워 이겨내리라고 각오를 다진다”고 전했다.

편지에는 양 할머니가 14세의 어린 나이에 일본으로 끌려가 겪어야했던 가슴 아픈 사연이 빼곡하다. 양 할머니는 초등학교 6학년이던 1944년 ‘일본에 가면 중학교에 보내주고, 돈도 벌게 해준다’는 일본인 교장의 말에 속아 미쓰비시중공업 나고야 항공기제작소에 동원됐다. 18개월 동안 강제노동에 시달리며 갖은 고초를 겪었지만 인금을 한 푼도 받지 못했다.

힌츠펠터, 광주와 영원히

손톱·머리카락 5·18 구묘역 안장식

‘푸른눈의 목격자’로 알려진 독일 언론인 고(故) 위르겐 힌츠펠터씨가 남기고 간 손톱과 머리카락이 생전 그의 바람대로 영원히 광주와 함께하게 됐다. 5·18기념재단은 15일 광주시 북구 망월동 5·18 구묘역에서 힌츠펠터씨가 생전에 5·18재단에 맡긴 손톱과 머리카락이 담긴 봉투를 안치했다. 이날 행사는 힌츠펠터씨의 부인 에델트라우트 브람슈테트(79)여사, 처제 로즈비에타 브람슈테트 미트(72)씨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어 “고인은 평소 친구들에게도 광주의 5월을 이야기하는 등 굉장히 자주 5·18을 이야기했다”며 “기자이자 카메라맨으로 여러 지역을 다니고 여러 사건을 취재했지만 그는 광주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회고했었다”고 전했다. 16일에는 같은 자리에서 힌츠펠터씨를 기리는 공식 추모식이 열렸다. 힌츠펠터씨는 5·18 당시 독일 제1공영방송 ARD-NDR의 일본 특파원으로 광주의 상황을 현장에서 취재해 가장 먼저 서방 세계에 알렸다. 고인이 목숨을 걸고 광주 현장을 기록한 영상 자료는 군부독재의 폭압을 전 세계에 알리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 그는 지난 1월 25일 독일 북부의 라체부르크에서 투병 끝에 향년 79세를 일기로 타계했다. 고인은 ‘죽으면 광주에 묻어달라’며 지난 2005년 한국 방문 때 자신의 손톱과 머리카락 등 신체 일부를 5·18재단에 맡겼다.



“광주서 편히 잠드소서” 1980년 5·18의 실상을 전 세계에 알린 독일 언론인 고(故) 위르겐 힌츠펠터의 가족이 15일 오후 광주시 북구 운정동 5·18 구묘역에 고인의 손톱과 머리카락을 안치하고 있다.

‘임 행진곡’ 원본 기증...5·18 기록관 전시

5·18민주화운동기록관은 임을 위한 행진곡 원본 악보를 최근 노래의 작곡가 김중률 광주문화재단 사무처장이 기증했다고 15일 밝혔다. 5·18기록관은 원본 악보를 현재 3층 기획전시실에 전시 중이며, 오는 20일 악보 기증에 관한 협약식이 예정돼 있다고 덧붙였다. 5·18광주민주화운동을 추모하는 노래이자 민주화운동을 대표하는 민중가요인 ‘임을 위한 행진곡’의 원본 악보는 그간 노래를 작곡한 김 사무처장이 보관해왔다. 김 사무처장은 지난 1982년 5월에 복귀 운암동 소설가 황석영씨의 자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지었다. 노랫말은 백기완이

쓴 밋비나리에서 황씨가 가사를 붙였다. 5·18민주화운동 당시 옛 도청에서 숨을 거둔 윤상원 열사와 연탄가스 중독으로 사망한 노동운동가 박기순씨의 영혼 결혼식에 헌정하려고 만든 노래극 ‘뉘폴이’에 수록된 8곡 가운데 마지막 곡이었다. 김 사무처장은 “황석영씨의 집에 있던 누런 종이에 순간적으로 오선지를 그리고 곡을 붙였는데 이 노래가 이렇게 유명해질 줄은 당시엔 나도 몰랐다”면서 “개인적으로 원본을 보관하는 것보다 광주시민, 나아가 모든 국민이 함께 봐야 한다는 판단 아래 최근 5·18기록관에 기증하게 됐다”고 말했다.

5·18 금남로 교통 전면 통제...16·17·21일

5·18민주화운동 36주년 행사를 위해 광주시 동구 금남로 일대 교통이 통제된다. 광주지방경찰청은 5·18 전야제 행사를 위해 16일 오전 9시부터 18일 새벽 3시까지, 레드 페스타가 열리는 21일 오전 0시부터 오후 12시까지 금남로 금남공원~전일빌딩 구간이 전면 통제된다고 15일 밝혔다.

지, 레드 페스타가 열리는 21일 오전 0시부터 오후 12시까지 금남로 금남공원~전일빌딩 구간이 전면 통제된다고 15일 밝혔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오늘의 날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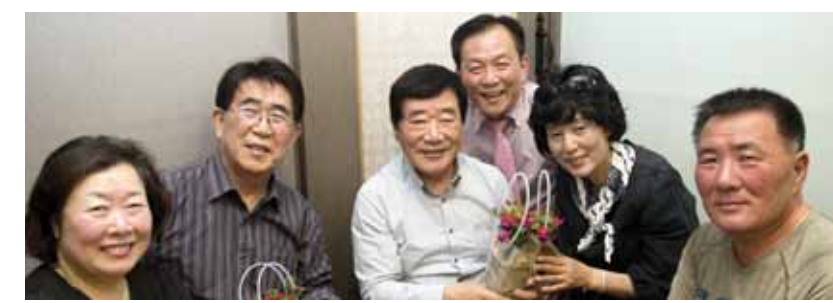
해돋이 05:28, 달뜨기 14:26, 해질 19:30, 달지기 02:25

안개 주의하세요! 그리고 비가 오다가 오전에 그치겠다.

Table showing regional weather forecasts for various cities in Korea, including Seoul, Gwangju, and Jeonju.

Table showing tide information (바다 날씨) for Gwangju, including high and low tide times and directions.

Table showing a 7-day weather forecast (주간 날씨) for Gwangju, including dates and weather icons.



황영성(왼쪽 세번째) 조선대 명예교수와 이문석(왼쪽 두번째) MBC 전 국장이 제작들로부터 카네이션을 전달받고 기념촬영을 했다.

52년만에 나는 ‘사제의 정’

황영성 조선대 교수, 영산포초 교사 시절 제작 4명과 해후

52년 만에 스승과 제작이 다시 만났다. 코흘리개 학생이던 제작들도, 열기 왕성한 젊은 교사도 어느덧 눈과 입가에 주름이 잡혔지만 서로를 알아보고 망설임 없이 힘껏 안았다. 스승의 날을 이틀 앞둔 지난 13일 광주시 서구 치평동 한 식당에서는 신명희(여·62)씨를 비롯, 황문수, 전종시, 이항씨 등 60대 동갑내기 제작 4명은 70대 은사인 황영성(76) 조선대 명예교수와 함께 이야기꽃을 피웠다. 신씨 등은 나주 영산포 남국민학교(현 영산포 초등학교) 제 39회 졸업생들로, 이날은 지난 1964년 3학년 담임을 맡았던 황 명예교수를 52년 만에 만난 날이다. 신씨 등은 올 해 스승의 날 수소분결에 황 교수를 찾았고 4학년 담임을 맡았던 이문석 전 방송국 국장과 함께 만나 카네이션을 달

아드리며 정을 나눴다. 머리가 희끗희끗한 60대 제작들이 초등학교를 졸업한 뒤 바쁜 세상살이를 이유로 찾아뵙지 못했다고 미안해하자 황 교수는 “52년 만에 초대해오니 가슴이 설레 잠을 못 이뤘다”고 했다. 황 교수와 제작들은 저녁 시간 내내 기념 사진을 찍고 여유도 나누며 아련해전 추억의 조각들을 맞춰갔다. 이제 모두 노인이 됐지만 스승에게 제작은 여전히 ‘불가에 내놓은 어린이’였다. 황 교수는 건강 관리에 힘쓰며 진지하게 조언하기도 했다. 제작 신명희씨는 “선생님을 뵈는다는 생각에 어찌 저녁부터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잠이 오지 않았다”며 “오늘처럼 기분 좋게 오랫동안 모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Advertisement for MG Seongsam Village Gas Station. Features a large image of the station and text: '서양새마을금고주유소 오픈', '모집 주유 외상거래 고객', '서양새마을금고주유소'.

Advertisement for a real estate listing. Features a large image of a house and text: '새 주인을 찾습니다', '매매', '아름다운 펜션 카페 영업중!!', '70~80년된 벚꽃, 소나무, 백일홍, 편백, 은행, 느티나무 50여그루 조성'.